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2.70원 상승한 1,433.10원에 마감

2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70원 상승한 1,433.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80원 상승한 1,431.20원에 개장했다. 장 초반 환율은 달러 약세에 1,429.10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위험회피 분위기에 따른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에 환율은 상승 전환했다. 이후 환율은 1,430원을 상회하며, 1,433.1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4.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58.1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1431.20	1437.00	1429.10	1433.10	1431.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60.29	962.99	957.12	961.60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504.24	1508.87	1501.31	1502.7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8	-5.1	-12.49	-27.03
결제환율(수입)	0	-4.33	-10.75	-23.68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 가능

금일 전망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1,43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33.10) 대비 2.30원 상승한 1,433.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3월 4일에서 4월 2일로 유예하겠다고 언급했으며, EU에 대해 조만간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 소식에 달러인덱스는 0.23 상승한 106.49로 마감했다. 한편 유로화는 트럼프의 관세 예고에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약세를 보였다. 금일 환율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상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업체의 월말네고 유입 및 외환당국 실개입 경계감 등에 환율의 상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29.20 ~ 1437.20 원
체크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227.58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3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 다우지수 : 43433.12, -188.04p(-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3.08 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85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